



다양한 식품용기 개발

강명규/ 현진제업(주) 차장

인류가 종이를 발명한 이래 종이는 인간생활에 다각도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에 이르러 냉온음료 Cup 및 식품포장용기로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식품포장용기로서의 종이는 냉동,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중량이 가볍고 가공성이 용이하고 무독·무취로 위생적이며 인간과 친화력이 우수하며 환경보전에도 유리하다.

1회용 종이컵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년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자동판매기, 냉온 음료용, 식품포장용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88올림픽 이후 국민건강과 위생을 위해 1회용품을 장려, 해마다 그 수요가 증가했으나 최근 2~3년 전부터 정부에서 쓰레기 문제로 인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쓰레기 종량제 등의 정책으로 인해 그 수요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종이컵 제조업체들은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하며 전국적으로 대략 200~25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작은 공간과 소자본으로도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가내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과 위생은 뒷전이요 값싼 물건만 요구되고 있다. 한번 사용하고 치운다는 개념에서 가격위주로

구매한다면 보다 좋은 품질의 생산과 국민 위생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이미 대만,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발포용기를 일부 종이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이미 이를 입법화해서 실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입법화해서 시행한다면 그 시장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의 종이컵에 대한 수요는 생산규모의 절반정도 수준이며 그로 인해 경쟁도 치열하다. 원자재인 펄프 가격에 대한 국제시세가 100% 정도 인상되어 원지값이 20~25%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up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50여개 Cup 생산업체가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됐다. 이에 각사마다 나름대로 업종전환, 구조개선, 조업단축 및 수출시장 개척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생활수준의 향상 및 생활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식품포장용기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어떤 제품이 환경보전에 유리한지 냉정하게 판단해 흔들림없는 일관된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종이컵은 다른 용기에 비교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좋고, 무엇보다도 생분해 수지가 개발됨으로 인해 사용후 완전히 분해된다. 현재 개발은 완료됐으나 약 10% 정도의 원가상승 요인 때문에 수요자에게는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에 얘기 했듯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된다면 생분해 수지를 Coating해서 사용하고 발포지와 같은 라면용기를 종이 용기로 대체 사용할 필요성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종이컵 업계에서도 식품보전에 이상이 없는 원지를 개발, 다양한 식품포장용기를 개발해 구조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제품(포장용기)의 고급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CAN 형상의 종이컵)의 용기와 같은 상품개발도 꾸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종이컵 시장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기업만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한다면 그 전망 또한 밝다고 본다. ☐